

결핵예방은 나부터!

글_정근(대한결핵협회 회장)



정말 사람들이 결핵에 무지하다. 얼마 전 일이다. 결핵 홍보를 위해 한 회사의 젊은 대표와 잠깐 티타임을 가졌다. “요즘 왜 그렇게 결핵이 부각되는 거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물었다. 그의 질문엔 ‘우리 사회가 결핵에 대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가볍지 않은 질책이 담겨져 있었다. “대표님, 21세기 우리나라에서 한 해 2천 명 이상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 뚝어지게 바라보는 그에게 나는 계속 ‘호들갑’을 떨었다. 다소 문어적이며, 권위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인 34위입니다. 근데 더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33위인 터키보다 무려 10배나 더 유병률이 높다는 거죠.”

겨우 정신을 수습한 듯 그 대표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냈다. 지난해 우리 회사 한 간부가 오랜 기침 끝에 결핵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잠깐 입원 치료하고는 다시 회사를 다니다가 결핵이 재발됐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좀 째째해 한다. 우리도 결핵검사를 받아봐야 하느냐, 얼마나 치료해야 완치되느냐, 한 해 결핵 사망자가 수천 명이라니 솔직히 겁이 난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들의 결핵 인식이 대체로 이 수준이다. 이런 무지는 무시로 일관하다가 끝내 높은 사망률에 화들짝, 하고 놀란다.

때론 무지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간다. 얼마 전 부산의 한 병원에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결핵 검사를 받았다. 같은 유치원에서 폐결핵에 걸린 어린이가 확인돼서다. 관할 보건소와 해당 병원에서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철통 보안 속에 검사를 펼쳤다. 일반 환자들은 대개 강한 감염성을 우려해 결핵 환자와의 접촉을 꺼린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걸렸을까를 염려한다. 사실 결핵균은 호흡기를 통해서만 옮는다. 전염성 있는 폐결핵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된다. 수분은 이내 증발하고 결핵균만 공중에 남았다가, 주변사람이 숨을 쉬면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면서 감염된다. 한데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식기류 등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으므로 결핵환자와 함께 음식을 먹거나 악수를 하는 행동 등은 무해하다. 결핵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결핵환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무지 탓에 빚어지는 두려움의 호들갑인 셈이다.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이다.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핵예방법에 의거해 이날을 ‘결핵 예방의 날’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4회 째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결핵예방은 나부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여전히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결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대한결핵협회 역시 지난 해에 이어 올 한 해에도 ‘개념 기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침을 할 때 손이 아니라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것을 말한다. 기침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보름 이상 기침이 계속될 때는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기원전 7천년 전 석기시대 화석에서 결핵의 흔적이 발견됐다. 고대인도 아리아메다 교 성전엔 결핵을 ‘모든 질병의 왕’으로 적어뒀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오래되고 무서운 질병인 결핵은 여전히 예방이 최선이다. †